

숲 정 이

사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이사 43, 16-21

제 2 독서 : 필립 3, 8-14

복 음 : 요한 8, 1-11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요한 8, 11)

강 론

소 리

사각지대

서석희 신부

야구 용어에 '텍사스 히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타자가 친 공이 내야수와 외야수 중간에 어중간하게 떨어져, 아무리 완벽한 수비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종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를 타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 누가 실책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비단 야구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헛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앞을 내다 본다 하더라도 10초 내지 15초에 한 번은 눈을 깜박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맹점(盲點)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이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남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저지러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맹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고, 상대의 맹점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이해와 설득보다는 언쟁이 오가고, 관계가 금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눈을 깜박 거리는 순간이 다르듯이, 이 맹점과 사각지대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만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듯이, 다시 말해 남의 좋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아픈 곳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하는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것처럼 자신을 완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격해져 있는 절박한 그 순간에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인가 쓰고 계셨다"(요한 9, 8)는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것은 자신들의 사각지대를 인정하지 않고 선불리 남을 단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진정한 판단은 우리처럼 결점과 맹점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느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이 좀 더 넓은 이해와 관용의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도록 여유와 시간을 갖자는 의미가 아닐까?

망둥이 정치판

망둥이에 대한 두 가지 속담이 있다. '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빛자루도 된다'와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이다. 요즘 정치판에 잘 적용되는 속담이다.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을 비롯한 의원선거가 눈앞에 다가서면서 너도나도 덩달아 좋아하고 날뛴다. 공직에서 불미스럽게 물러 났던 사람이 청렴결백 때문에 쫓겨난 사람으로 둔갑하고, 그 동안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정년을 운송계 넘긴 사람이 행정경력자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부모 덕에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졸부가 명절 때 선물 좀 돌리더니 지역의 덕망가로 자칭 변했다. 제비족 뺨치던 한량이 예술가로, 법보다 주먹이 앞서던 사람이 의리의 사나이로 바뀌면서 지방정가는 온통 출사표 풍년이다.

자천타천의 이름으로 신문 방송은 어중이떠중이 가림없이 지면을 훼손하고 전파를 소모한다. 열게미(어레미=구멍이 굵은 체)로라도 걸러내는 게 독자나 시청자를 위한 길일텐데...

칭찬이 미덕이라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인다. '네 자신을 알라'고 비판하기는 고사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당신만한 인물이 없다'며 한 술 더 떠주니까 기고만장일 수밖에... 그러니 제 분수를 알 수 있겠는가? 죄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우리라도 거짓없는 충고로 전라도 빛자루 신세는 막아 줬으면 싶다.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 유보수 권력직으로 변한다지만 이같은 우후죽순의 출마가 부럽기도 하다. 왜 정당에서는 일 좀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을까?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일까? 적은 봉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는 사람이 어찌 큰 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마도 젓발에 뜻이 있는 모양. **㉠**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53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창세 39, 1-23)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에집트에 끌려 내려온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린다. 그리운 부모 형제를 떠나 먼 이국타향에 노예로 팔려 온 요셉의 처지는 가련하기 짝이 없다. 철없는 꿈자랑의 대가를 토틀하게 치르는 셈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저자는 하느님께서 가련한 처지의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그의 앞길을 열어 주셨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셉의 성공담 전체에 하느님의 특별한 손길이 전제되어 있지만 하느님의 도움이 이 대목에 서처럼 명시적으로 언급된 곳은 없다. 주인은 요셉을 들에 보내어 힘든 일을 하도록 하는 대신 집안에서 일하게 해주었다. 이것은 요셉이 이미 다른 노예들에 비하여 특전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요셉을 돌보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어 간다. 주인도 이 사실을 알아 차리고 그를 자기 개인적 심부름꾼으로 삼고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긴다.

그런중에도 주인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다. 히브리인들처럼 에집트인들도 종교적인 관습에서 음식 규정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요셉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아 용모가 빼어난 청년이었다. 요셉의 용모에 대한 묘사는 뒤따라 벌어질 사태를 준비시키고 있다. 요셉이 주인의 전권을 쥐고 관리를 해오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그를 노골적으로 유혹한다. 요셉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과 하느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공무상 불가피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주인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집안에 없었다. 부인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의 옷을 붙들고 침실로 가자고 유혹한다. 요셉은 그녀의 손에 옷을 빼앗긴 채 밖으로 뛰쳐나간다.

주인 아내는 자신의 구애가 실패로 돌아가자 요셉을 궁지에 빠뜨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요셉을 ‘저 히브리 녀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조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친 김에 요셉의 옷을 챙겨 두었다가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 요셉을 또다시 증상모략한다. 그리고 부인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

주인에게 뒤집어 씌운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 녀석 말이어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 따위 짓을 했던 말이어요”하고 외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주인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못한 채 화가 치밀어 요셉을 잡아 감옥에 넣어 버린다.

사실 종의 신분으로 주인댁 아내를 범하려 했으니 사형감이다. 그런데도 주인은 요셉의 평소 충직성을 참작한 탓인지 감옥에만 가둔다. 저자는 요셉이 갇힌 감옥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라고 보고한다. 이는 왕궁 감옥에 갇힌 두 시종장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 다음 대목에 대비한 배려이다.

하느님은 감옥에까지 찾아오시어 요셉을 돌보아 주신다.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어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의 호감을 사도록 한다. 한편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비록 자신의 경거망동한 언행과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에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요셉 역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그리고 주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주인댁 마님의 구애도 뿌리침으로써 그의 충직성을 증명해 보였다. 하느님의 돌보심과 요셉의 충직성이 요셉의 삶을 떠받치는 한 노예 신분으로 살든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재상으로 파라오의 궁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심봤다 짬짬방

- 채증감량, 기미주근깨 제거
- 허리디스크 및 관절염, 여성미용효과
- 김갑천(베네딕도)
- 박연순(보나)
- 신일APT 앞 3층(약촌사거리)
- ☎(0653)858-0681

천하 오토바이

- 전차중 · 판매 · 수리 · 교환
- 남상권(프란치스코)
- 성문회(사비나)
- KBS방송국 고가도로 복개전 사거리
- ☎(0652)72-3847

LG(금성)에어콘 총판

- 6개월~12개월 무이자 할부판매
- 에어컨, 환온합습기, 공기정화기
- 온풍기, 대형냉장고, 중앙집중식냉·난방
- 원종삼(발리바) · 원승연(도밍고)
- 삼화공조 ☎(0652)251-0190~2
- 휴대폰 011-653-2346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 T.V · 전축 · V.T.R
- 김남태(바오로)
- 김윤태(돈부스코)
-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 ☎(0653)842-2604~5, 54-9504
- 아남서비스 834-2628

잠깐

주님의 은총의 해

1. 서기 2000년-대희년(大禧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4년 11월 10일 2000년 대희년 준비에 관한 교황 교서 「제삼천년기(Tertio Millenio Adeniente)」를 발표하여, 다가오는 셋째 천년대의 의미와 그에 대한 전교회의 준비를 당부하고 기도와 행동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교회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도하에 대희년인 2000년을 준비하게 되며,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기쁘고 성대하게 경축할 예정이다.

희년의 의미와 배경

희년은 이스라엘인들이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한 해로 기념되었다. 7년마다 기념하는 '안식년'과 50년마다 기념하는 '희년(禧年)'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서 발견된다. "너희는 또 일곱 해를 일곱 번 해서,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 오십년이 되는 이 해를 너희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킬 해이다."(레위 25,8-10)라고 희년을 규정한 후, 안식년과 희년에는 밭을 논려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빚을 탕감해주며,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신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년은 '해방의 해'(레위 25, 10; 27, 17-18)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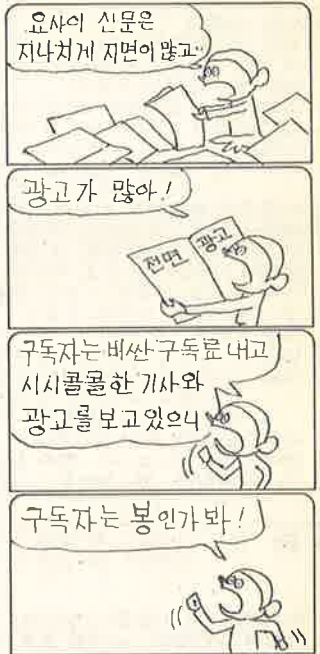
그러나 안식년을 포함한 희년의 규정들이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은 없었다. 다만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을 뿐이다. 가난한 이들과 노예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희년의 은혜들은 언제 올 것인가? 교회는 구원과 해방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된다고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희년을 '주님의 은총의 해'로 선포하셨으며, 그 희년의 해방과 구원이 당신으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셨다(루가 4, 18-21 참조).

교회도 이러한 희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죄와 죄에 부수되는 벌을 면하여 주는 대사(大赦)를 허락함으로써 매 25년, 50년 그리고 100년마다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 또는 성년(聖年)의 관습을 보존하여 왔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계에 큰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희년 중의 대희년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내적으로는 물론이요, 외적으로는 기쁘고 성대하게 경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볼 수 있는 육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하느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한국사목연구소 제공)

교구 소식

- ※ 사순절 공동 2차 헌금: 4월9일(일) 각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 1. 이병호 주교님 성성 5주년: 4월3일(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주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4월9일(일) 오전10시 삼천동 성당, 주례-이병호 주교
- 3. 축! 견진: 4월8일(토) 오후4시 월명동 성당
- 4. 천호 피정 안내: 4월4일(화) 주례-화해와 참회, 강사-정승현 신부 4월9일(일) 세레대상자 피정, 강사-박종근 신부, 문의 73-6600
- 5. 가톨릭 문우회 피정: 4월5일(수) 치명자산, 집결-가톨릭센터 오전9시30분
- 6.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4월3일(월) 오후6시30분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7. 예·신 모임: 4월9일(일) 오후1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 8. 사회복지 월례미사: 4월3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9. 연도대회: 4월8일(토) 오후2시30분 전동 성당 교육관, 대상-포미시움별 1팀
- 10. 치명자산 성직자 묘지 사초함: 4월3일(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심이 (1127) 김병오



주교관 직원 구함

- 1. 지원자격: 영세한 지 3년 이상된 30세미만 여성 2. 제출서류: ①자필 이력서(사진부착) ②세례증명서 ③본당신부 추천서 각1통. 3. 서류접수 마감: 4. 15(토) 4. 서류접수 및 문의: 전주교구청 사무처(☎ 85-0041) 5. 기타: 면접일자는 개별통보함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0652)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오환(요한)

양진희(아나디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 전상진(베드로)
- 유명숙(요안나)
- 다가동 파출소 옆
- ☎ 84-6085, 223-5823

최첨단 부엌가구 NENX전북종합전시관매장

- 박영근(공사가)
- 장정신(젼마)
- 전주시 덕진구청 앞
- ☎ 75-0523-4
- FAX (0652)75-0524

-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대어
- 최윤경 (유리안나)
- 미용실 · 미용학원
- 학생수시모집
- 속성발모 · 피부미용과
- 이리시 중앙동3가 7-1
- ☎ 841-2496, 855-8653

믿음의 나눔자리 안내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는 통신교리 수강자 및 영세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믿음의 나눔자리를 펴내고 있다. · 내용: 교리, 전례상식, 성서해설, 신앙체험기, 명상, 문화란 등으로 구성 · 1년 10회 발행, 1년 회비 8000원(전화신청 가능) · 문의: (02)275-0691/266-2558 FAX(02)277-4492 (월/금/9: 00-17: 0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림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사순 제5주일

1. 본당 관공일정 안내 : 6일, 7일, 10일, 11일(손님신부님)
* 시간-후 3시부터 6시까지 미사 전후. 8일-초등부(후 3시)
9일-중·고등부(후 4시)
 2. 특별기도 및 성체강복 : 6일 저녁미사 후
 3. 병자 봉성체 : 7일 오전중 * 사무실에 신청
 4. 사목회 상임 : 7일 저녁미사 후
 5. 예수 부활 구역성가 발표회 : 16일 장엄미사 후
* 각 구역별로 연습바랍니다.
 6. 비품구입 특별헌금 신임액 : 이응진, 최환, 강행구-각 10만원, 박태복, 익명-각 30만원, 박형숙, 안재홍-각 20만원, 이정선-3만원, 이태영-50만원, * 소계 : 183만원 * 누계 : 1,233만원
봉헌액 : 김영문, 윤석연, 최철영-각 20만원, 백충부, 박화자, 유복자, 윤광섭, 박길방, 노승남, 국철호, 최길순, 안재홍, 이정애, 익명-각 5만원, 이종용, 송정란-각 3만원, 한현실-1만원, 오점영, 노광용-각 15만원, 백건준-12만원, 이기원, 조준호-각 10만원, * 소계 : 184만원 * 누계 : 595만원
 7. 모임 : ① 성모회, 자모회(5일 장엄미사 후)
② 반회장 모임(6일 전 10시30분)
③ 장우회(9일 장엄미사 후)
 8. 다음주일(주의 수난 성지주일) : 사순절 공동 2차헌금 있음.
 9. 금주 청소 : 중노4.5반, 치주 청소 : 중노6.8반
- 지난주 봉헌금 : 954,980원 □ 교무금 : 2,06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모임 안내 : 푸리아-오늘 오후 2:00시, 장소-강당,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장소-회합실, 사목회-4월4일(화요일) 저녁 8시, 장소-회합실, 자모회-4월4일(화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회합실, 울트라아-4월6일(목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강당, 프란치스코 삼회-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 장소-강당
 2. 반미사 안내 : 거산APT101동, 104동, 진흥APT-4월7일(금요일) 오후 2시30분, 장소-거산APT101동 사라, 거산APT102동, 103동-4월11일(화요일) 오후 2시30분, 장소-고순련(수산나)
 3. 관공성사 안내 : 평일미사 30분 전후
· 4월6일-오후 8시, 김병엽, 김정민 신부님 초청
· 4월8일-오후 3시, 초·중·고학생 박기훈 신부님 초청
 4. 십자가의 길 : 금요일 저녁미사 후, 장소-치명자산
 5. 사순절 공동 2차헌금 실시 : 4월9일(일요일)
 6. 청소 : 금주-정외의 동정녀, 차주-사랑하움 어머니
 7. 의자성금 내신 분 : 정의양(보나) 100,000, 홍순부(바오로) 100,000, 김중국(노렌조) 100,000, 장정자(테레사) 100,000, 강기호(요셉) 250,000, 김재술(베드로) 100,000, 장정순(보나 맨뚜라) 100,000, 이영희(세리리아) 200,000, 유삼효 외 10명 470,000, 신임하신분-이재호(리차드) 250,000, 양봉희(루시아) 30,000, 김진수(그레고리오) 250,000, 전성복(야우구스며 누스) 260,000, 손창진(마리아) 100,000, 차상열(알로이시오) 250,000 * 계 : 1,520,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046,000원 □ 교무금 : 979,7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송년홍
사목회장 황길평

1. 십자가의 길, 사순절 신앙강좌 : 금요일 오후 7시
 2. 예비자 집중교리 : 4-8일 오후 7시반
 3. 2차헌금(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9일 주의 수난 성지주일
 4. 구역반장 피정 : 4일(화) 천호 피정의 집-9시 출발
 5. 성주간 예절 : 유인불을 보시고 착오가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성체 강복 : 6일(목) 저녁미사 후
 7. 모임 안내 : ① 성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 울트라아-4일(화) 저녁미사 후 ④ 자모회-6일(목) 오전 10시 ⑤ 여성분과회-8일(토) 오전 10시 ⑥ 요셉회, 해설자 모임-9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⑦ 푸리아-9일(다음주일) 오후 2시 ⑧ 청년회-9일(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8. 사순절 성서 묵상을 위한 문제지를 작성하여 다음주일까지 내주십시오.
성당 청소 : 4월 8일(토) 천사의 모친Pr, 사랑하움 어머니Pr.
금주 전례 : 해설-유복규,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이상은 가족
차주 전례 : 해설-형인순, 독서-유두석 부부,
봉헌-김창환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03,650원 □ 교무금 : 1,578,500원
□ 감사헌금 : 30,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영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 사순 제5주일
치명자산 산상미사-오전 5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 ◎ 주일 오전 9시미사는 중·고 학생미사로
오후 5시미사는 일반미사로 변경됩니다.
 1. 금주 : ① 성소후원 회비 납부주일
② 돈보스교회 1일 피정(수류성당)
③ 계숙글라라형제회(후 1시30분)
④ 요셉회(후 6시)
⑤ 울트라아(후 8시)
 2. 부활 관공성사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30분-5시(사랑방)
저녁미사 후(성당 교백소)
 3. 빼에따회 : 4월 5일(수) 오전 11시
 4. 성체강복 및 조배 : 6일(목) 오전 10시
 5. 성모성심회 : 6일 오후 3시
 6. 병자 봉성체 : 7일 오후 2시
 7. 차주 : ① 사순절 공동 2차헌금 ② 자모회(전 10시)
③ 일치의 모후 푸리아(후 2시) ④ 사목회(후 8시)
 8. 조호선(아네스), 인보성체수도회 입회, 기도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188,17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1. 모임 : ① 푸리아-요셉회-공식미사 후 ② 안나회-다음주일
 2. 성체강복 및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 후
 3.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4. 요셉회 꽃동네 방문 : 4일(화) 오전 7시
 5. 사순절 산행 : 5일(수), 영암 월출산, 오전 7시
 6. 부활 제대꽃 봉헌 : 강순옥-3만원
 7. 부활 성가연습 : 평일 저녁미사 후
 8. 금주 청소 : 순교자의 모후Pr.
 9. 차주 청소 : 모든 성인의 모후Pr.
 10. 구역 관공성사 및 미사 : 7일(금)-원신
 11. 금주 전례 : 해설-김미남, 독서① 양주태 ② 주영례
봉헌-최경림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 남현준 ② 이행남
봉헌-안복성씨 부부
- * 사순절 신앙생활 실천**
1. 기도생활-일상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2. 전례생활-성체조배, 성시간 및 강복, 매일미사 참례
 3. 회개와 보속-화해성사(교백) 1일1선(자선과 사랑 및 선행실천)
 4. 극기와 재계-단식(성금요일) 금육(사순절 때 금요일)
 5. 성서 및 신심서적 읽기-요한복음 및 교회사적 1권 이상
- 지난주 봉헌금 : 331,500원 □ 교무금 : 318,000원
□ 본당발전을 위한 헌금 : 130,9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삼근

- ◎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라”(요한 2, 11)
 1. 부활 관공 참회예절 : 3일 저녁 7:30(새벽미사 없음)
 2. 부활 관공성사 시간 : 오전 9시~12시, 오후 3시~6시, 저녁 7시 이후, 4일 1구역~5구역, 5일 6구역~10구역, 7일-보충판공 성사. 3. 구역 반회장 연수 : 4일 오전 10:30.
 4. 세례 대상자 면접 : 3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
 5. 세례 대상자 집중교리 : 5일~7일 저녁 8시
 6. 세례식 : 8일(토) 후 4시30분, 대부모 시간전 도착 바람.
 7. 세례자 환영식 : 9일 공식미사 후
 8. 성체강복 및 성시간 : 매일 첫 목요일 저녁미사 후(8시)
 9. 주의 수난 성지주일 : 9일 공식미사중 성지 축성 예식
 10. 회의 : ① 푸리아-오늘 후 2:30 ② 부녀회-5일 어머니미사 후 ③ 성체회-9일 공식미사 후
 11. 축하! 혼인 : 9일 12시30분, 중앙성당, 신랑-김수용(스테파노) 신부-김미영(아네스) 김수명씨의 차남과 김길용씨의 4녀.
 12. 전입을 환영합니다 : 코로통APT-국정국(라파엘라) 9/1801 ☎ 225-6341 이영희(엘리사벳 씨튼) 9/1102 ☎ 222-0931 조정순(요셉피나) 2/505 ☎ 224-3872 김숙희(로사) 5/704 ☎ 223-5764 백을호(야가다) 우정록원A 509호 ☎ 85-7594 배순자(세레나) 영창A 나/403 ☎ 83-1262 최창암(켈라노) 15-6 ☎ 223-3468
- 지난주 봉헌금 : 1,379,410원 □ 교무금 : 2,431,000원